

등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덕신역(德新驛)

조선조 군내(郡內)의 4개 역 중의 하나인 덕신역은 중등마(中等馬) 2필, 복마(卜馬) 5필, 역리(驛吏) 27명, 역원(驛員) 10명, 역비(驛婢) 천명(千名)을 두었던 곳이라 전한다.

2) 망양휴게소

덕신1리 최남단 7번 국도변에 망양휴게소가 설치되어 많은 차량이 정차하고 관광객이 대거 찾는 곳으로 7번 국도상의 대표적 휴게소이다.

3) 별신굿

5년마다 무당을 청해서 마을의 무병(無病)과 풍농(豐農), 풍어(豐漁)를 기원하는 행사를 연신굿이라 하는데 지금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4) 성황당(城隍堂)

3개 자연부락(自然部落)마다 성황당이 있는데 매년 정월 대보름날에 엄선된 제관이 성황제를 올리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대곡동의 성황당은 매년 단옷(端午)날에 한 번 더 제사를 지내고 있다.

제9절 덕신2리(德新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7번 국도가 있어 덕신1리와 경계를 하고, 서쪽은 현종산 지맥(支脈)으로 둘러싸였으며, 남쪽은 기성면 망양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북쪽은 신흥리와 경계를 하는 산간(山間)마을이다. 마을회관은 2003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 밤월(夜月)

1900년경에 경주에서 온 이백우(李伯雨)가 이 마을을 개척하여 망월(望月)이라 하였는데 그 후에 특히 달 밝은 밤에 동해를 바라보면 달빛, 파도, 바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하여 다시 밤월이라 하였다 한다.

2) 한밭(閑田·項田)

1390년경에 평해 황씨(平海黃氏)가 마을을 개척하여 살면서 산(山) 고개가 사람의 목과 같다 하여 항전(項田)이라 하였는데, 그 후 1630년경에 성주 도씨(星州都氏) 이량(爾良)이라는 사람이 입주하여 조용한 곳이라 하여 한밭(閑田)으로 개칭하였다고 전한다.

3) 항실(項實, 項谷)

마을의 산마루가 사람의 목과 같다 하여 마을 이름을 항실(項實)이라 부르고, 또 마을의 계곡(溪谷)이 낭떠러지가 많아 항곡(項谷)이라 부르기도 한다.

3. 가구 분포

총 25세대가 거주하며 주로 성주 도씨(星州都氏)가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特徵)

1) 성황당(城隍堂)

한밭(閑田)과 항실(項實)에 성황당이 있는데 정월 대보름날에 엄선된 제관이 마을의 무병(無病)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있다.

2) 쫓대바위

예부터 마을에 쫓대와 같이 생긴 바위가 쫓불과 같이 비취준다고 하여 쫓대바위라 한다.

3) 탕건바위

바위 모양이 탕건과 같이 생겼다 하여 탕건바위라 한다.